

2026.08.14.

##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케이디비생명보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대한 KR의 견해

- 양사 신용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나, 케이디비생명보험의 자본적정성 추이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필요

|                                                          |                                                         |                                                      |                                                      |
|----------------------------------------------------------|---------------------------------------------------------|------------------------------------------------------|------------------------------------------------------|
| 윤민수 금융2실 수석연구원<br>02.368.5648<br>msyoon@korearatings.com | 김성빈 금융1실 선임연구원<br>02.368.5447<br>kimsb@korearatings.com | 김태현 금융1실 실장<br>02.368.5319<br>thkim@korearatings.com | 이창원 금융2실 실장<br>02.368.5638<br>cwlee@korearatings.com |
|----------------------------------------------------------|---------------------------------------------------------|------------------------------------------------------|------------------------------------------------------|

한국투자금융지주가 2026년 8월 13일에 한국산업은행 등이 보유한 케이디비생명보험 지분(99.75%)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인수 완료시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신용도 및 지원의지를 감안할 때 케이디비생명보험 신용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다. 한국투자금융지주도 단기적인 재무부담 확대는 불가피하나, 핵심계열사인 한국투자증권의 우수한 이익창출력 및 배당여력을 감안할 때 감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매각 전·후 최대주주의 자본 확충 등을 통한 케이디비생명보험의 자본적정성 추이와 함께 인수가액 등 구체적인 인수조건,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자본적정성 추이에 대해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 1.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케이디비생명보험 지분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한국투자금융지주가 2026년 8월 13일에 한국산업은행 등이 보유한 케이디비생명보험 지분(99.75%)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한국산업은행은 2014년 이후 여러 차례 매각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고, 금번 진행된 본입찰에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최종인수제안서를 제출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었다. 구체적인 인수가액과 인수시기는 미정이다.

### 2. 케이디비생명보험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과 주요 모니터링 요인

최대주주가 변경될 경우에도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신용도 및 지원의지를 감안시 케이디비생명보험 신용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다. 케이디비생명보험 신용도에는 최대주주인 한국산업은행의 지원능력과 지원의지를 반영하여 자체신용도 대비 상향 조정요소가 반영되어 있다. 최대주주가 한국투자금융지주로 변경될 경우에도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신용도 및 지원의지를 감안할 때 케이디비생명보험 신용도에는 최대주주의 계열지원가능성이 자체신용도 대비 상향 조정요소가 반영될 전망이다.

**K-ICS비율 등 자본적정성 지표에 대해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2026년 3월말 기준 케이디비생명보험의 K-ICS비율(경과조치적용후)은 186.1%로, 2025년 12월 한국산업은행의 유상증자(5,000억원)를 통한 자본확충 및 TAC 재평가로 2024년말(158.2%) 대비 상승하였다. 그러나, 2026년 계리적 가정 변경 및 경과조치 효과의 점진적 소멸을 감안하였을 때 K-ICS비율의 하방압력이 지속될 전망이다. 2027년부터 기본자본 K-ICS비율 규제(규제수준 50%)

도입이 예고되어 있는 가운데, 케이디비생명보험의 2026년 3월말 기준 기본자본 K-ICS비율(경과조치적용후)이 41.9%로 규제수준을 하회하고 있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 매각 전·후 최대주주의 자본 확충 등을 통한 자본적정성 추이에 대해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표 1]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요 재무지표

(단위: 억원, %)

| 구분            | 2022(12) | 2023(12) | 2024(12) | 2025(12) | 2026(03) |
|---------------|----------|----------|----------|----------|----------|
| 총자산           | 203,716  | 174,573  | 177,642  | 172,045  | 165,576  |
| 자기자본          | 6,078    | 3,856    | 613      | 4,093    | 4,842    |
| 보험계약마진(CSM)   | N/A      | 5,830    | 8,650    | 7,730    | 8,485    |
| 당기순이익         | 481      | 240      | 204      | -1,119   | 278      |
| 총자산세전이익률      | 0.2      | 0.1      | 0.1      | -0.6     | 0.7      |
| 고정이하자산비율      | 0.3      | 0.2      | 0.9      | 1.6      | 1.7      |
| 지급여력비율        | 162.5    | 117.5    | 158.2    | 205.7    | 186.1    |
| 지급여력비율(경과조치전) | N/A      | 56.7     | 53.0     | 71.0     | 74.5     |

주) 1. 2022년은 IFRS4/IAS39, 2023년부터 IFRS17/IFRS9 기준

2. 지급여력비율은 연결기준, 2022년말은 RBC 기준, 2023년부터 K-ICS 기준

자료) 업무보고서

### 3. 한국투자금융지주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과 주요 모니터링 요인

금번 인수가 한국투자금융지주 신용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인 수준일 것으로 판단된다. 언론 보도 및 업계 추산에 따르면 인수금액 및 케이디비생명보험의 자본 확충 등으로 1조원 이상 대규모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국투자금융지주의 2026년 상반기 연결 기준 순이익이 1.9조원에 달하는 등 핵심 계열사인 한국투자증권의 우수한 이익창출력과 배당여력을 감안할 때 금번 인수 관련 재무부담은 감내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인수가액을 포함한 구체적인 인수조건 및 자본적정성 추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케이디비생명보험의 인수에 따른 사업적 및 재무적 시너지 발현에는 다소간 시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할 때 단기적으로는 재무부담 확대가 불가피한 가운데, 소요자금 규모에 따라 이중레버리지비율 규제를 충족하기 위해 자본성 자금조달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과거 수 차례 케이디비생명보험 매각이 실패했던 점을 감안시 인수가격 및 자본확충 조건 협상,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 매각 경과 및 최종 성사 여부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표 2] 한국투자금융지주 주요 재무지표

(단위: 억원, %)

| 구분           | 2022(12) | 2023(12) | 2024(12)  | 2025(12)  | 2026(03)  |
|--------------|----------|----------|-----------|-----------|-----------|
| 총자산(연결)      | 863,086  | 959,012  | 1,092,202 | 1,361,619 | 1,480,066 |
| 자기자본(연결)     | 77,057   | 84,451   | 97,345    | 120,995   | 128,599   |
| 영업이익(연결)     | 5,458    | 8,204    | 11,997    | 23,453    | 11,063    |
| 당기순이익(연결)    | 6,398    | 7,081    | 10,459    | 20,244    | 9,167     |
| 부채비율(별도)     | 478.8    | 54.9     | 61.7      | 61.9      | 78.1      |
| 이중레버리지비율(별도) | 129.0    | 129.5    | 127.8     | 110.3     | 122.0     |

자료) 업무보고서

**[유의사항]**

- (1) 한국기업평가(주)(이하 ‘당사’)가 제공하는 신용등급은 특정 금융상품, 금융계약, 발행자 등의 상대적인 신용위험에 관한 분석 시점에서의 당사의 의견입니다. 또한, 당사가 제공하는 보고서 등의 제반 연구자료(이하 ‘간행물’)는 상기 특정 금융상품, 금융계약, 발행자 등의 상대적인 신용위험에 관한 당사 또는 필자 개인의 견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및 간행물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신용위험을 제외한 다른 위험(금리나 환율변동 등에 따른 시장가치 변동위험, 해당 증권의 유동성위험, 내부절차나 시스템으로 인해 발생하는 운영위험)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용등급 및 간행물에 포함된 당사의 의견은 현재 또는 과거 사실에 관한 진술이 아니며, 당사 고유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대상의 미래 상환능력 등에 대해 예측한 독자적인 견해로서, 이러한 예측정보는 실제 결과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및 간행물은 환경변화 및 당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2) 신용등급 산출 및 간행물 발간(이하 ‘신용평가업무 등’)에 이용되는 모든 정보는 평가대상회사 또는 기관이 제출한 자료와 함께 각종 공시자료 등의 자료원으로부터 수집된 자료에 근거하고 있으며, 당사는 제3자 요청 신용평가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등급 산출 시 제출자료에 거짓이 없고 중요사항이 누락되어 있지 않으며 중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내용이 들어 있지 않다는 확인서를 평가대상회사 또는 기관으로부터 수령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평가대상회사 또는 기관 및 이들 대리인이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한다는 전제 하에 신용평가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신용평가업무 등 과정에서 이용하는 정보에 대해 별도의 실사나 감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정보의 오류 및 사기, 허위에 따른 결과에 대해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 (3) 당사는 신용평가업무 등 과정에서 이용되는 정보에 대해 별도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분석자·분석 도구 또는 기타요인에 의한 오류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사는 신용등급 및 간행물의 정확성 및 완전성을 보증하거나 약속하지 않습니다. 당사 간행물의 모든 정보들은 신용평가업무 등에 필요한 주요한 판단 근거로서 제시된 것으로 평가대상에 대한 모든 정보가 나열된 것은 아니며,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지 않는 이상 당사 신용등급 및 간행물 상의 정보이용으로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 및 결과에 대해서도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4) 당사는 금융상품의 매매와 관련한 조언을 제공하거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당사의 신용등급 및 간행물은 특정 유가증권의 매수, 매도 혹은 보유를 권유하는 정보가 아니며 시장 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정보도 아닙니다. 당사의 신용등급 및 간행물은 그 내용으로 이용자의 투자결정을 대신할 수 없고 금융상품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를 판단하기 위한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보이용자들은 스스로 투자대상의 위험에 대해 분석하고 평가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각자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만 합니다. 특히, 당사의 신용등급과 간행물은 시장 전문기관을 일차적인 이용대상으로 하고 기본적으로 개인투자자에 의한 이용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아 이를 이용하여 개인투자자 스스로 투자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외부전문기관의 도움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공시되지 않은 신용등급이나 제3자 요청 신용평가에 따라 산출된 신용등급의 경우 신용평가 요청인 이외에는 해당 신용등급을 믿고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밝혀 둡니다.
- (5)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의견으로 당사의 공식의견이 아닙니다.

Copyright 2026, Korea Ratings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대표전화: 368-5500 FAX: 368-5353.

본 보고서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의 저작권은 한국기업평가(주)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정보도 당사의 서면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재되거나 복사, 인용(또는 재인용), 배포될 수 없습니다.